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1
JANUARY

•
Vol.216

cover story

2021년 희망 가득! 기쁨 가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 키케로 (로마 정치가, 철학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밝은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는 이 없듯
새해에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를 것을 기대해봅니다.

2021년 새해에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한 성장

- 04 CEO 신년사**
‘Vision 2025’를 향한 희망찬 도전
- 06 운영위원 신년사**
운영위원이 전하는
신축년(辛丑年) 신년사
- 08 Emerging Trends**
2021 산업별 변화와 전망은?
- 10 Team Story**
마이데이터팀
- 12 Client+**
삼표그룹
- 14 Market Reader**
언택트(Untact) 시대,
다시금 주목받는 비대면 의료 산업
- 16 Expert's Advice**
코로나 시대, M&A 시장에서 살펴본
산업의 변화상은?
- 17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9 KPMG Story**
2021년 기대하는 삼성KPMG의 모습은?
- 20 Hello 2021**
소띠 삼정인들이 품은
2021 버킷리스트는?
- 22 인재양성소**
‘ASPAC New Manager Series’
어땠나요?
- 24 心 Care**
시간은 우리 편! ‘우리의 인생은 길다’
- 26 세계는 지금!**
경제 회복 신호탄 쏘아 올린 캐나다!
- 28 Samjong News**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시무식’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外



‘Vision 2025’를 향한 희망찬 도전



2021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 소는 예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닌 상징적인 존재로 좋은 기운을 지닌 동물입니다. 흰 소가 의미하는 힘차고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놓였던 지난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예측 불가능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및 지역이 봉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삼정KPMG는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든 시기를 잘 헤쳐왔습니다.

COVID-19 위기 속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힘을 보태고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산업별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온라인 웹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산업별 인사이트를 전했으며, ‘COVID-19 비즈니스 리포트’를 통해 COVID-19가 글로벌 경제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은 우리의 ‘Vision 2020’의 완성을 이뤄온 해이기도 합니다.

Vision 달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해온 결과 4년 연속 KPMG Global Board Country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6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신입 회계사를 채용하고, 최근 3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평가시험에서 상위 5% 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계사를 최다 배출하는 등 인재양성 측면에도 양적, 질적 모두 건강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행복한 일터 마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최신 IT 플랫폼을 접목한 스마트 오피스를 추가 오픈하여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했으며,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를 비롯해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최고의 품질과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감사품질위원회를 신설하고, 코칭 전담팀인 Second Line of Defense팀을 발족해 품질관리 조직을 보강한 데 이어, 2020년에는 감사품질과 위험관리 기능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실과 심리실을 분리하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드라마 방식의 'ACI 세미나'와 'AAP(Advanced Auditor Program)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ACI 저널',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감사위원 지원을 통한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도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온 삼정KPMG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모든 면에서 자랑스럽고 조화로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2020년이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2021년은 COVID-19가 촉발한 새로운 현실(New Reality) 속에서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환경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서로 장벽을 허물고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초융합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비대면 환경에 대한 수요 폭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경영 어젠다로 더욱 각광

받을 전망입니다. 거리두기 문화는 우리의 업무방식과 고객과의 소통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발맞춰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최신 디지털 기술 도입, 전문가 육성 등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에 내재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로 긍정적인 법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를 부여하고(Inspire Confidence), 세상의 변화를 주도(Empower Change)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는 'Vision 2020'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Vision 2025'라는 더 큰 목표와 도약을 향해 첫 걸음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노력할 때,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Vision 2020'을 넘어 **'Vision 2025'를 향한 희망찬 도전을 함께 합시다.**

2021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삼정KPMG 회장 김교태

운영위원이 전하는 신축년(辛丑年) 신년사

先則制人 선즉제인



변화에 대처하며 발전을 이루고 희망 가득한 해가 되기를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엄중한 감사 환경은 우리의 고객 관계, 업무 및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인지정제, SOX 감사, 유연근무, 교육 인프라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감사품질(Audit Quality)과 성장(Growth)의 균형 있는 발전을 성공적으로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예상하고 먼저 준비하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보여주신 전문가적 책임감과 자율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에는 더욱 발전된 삼정KPMG,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다시 느낄 수 있는 희망찬 신축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udit 한은섭 대표**

春蘭秋菊 춘란추국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도약하는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마음으로 같이 해준 세무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춘란추국(春蘭秋菊)은 “봄에 피는 난초는 난초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는 국화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세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접촉이 새로운 미덕이 되고 있지만 새해에는 같이 대면할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새해 건강한 한 해되시기를 기원합니다. **TAX 윤학섭 대표**

土積成山 토적성산



작은 것이 쌓여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기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바뀐 변화된 환경임에도 힘을 모아 주신 삼정KPMG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흙이 쌓여 산을 이루듯이, 작은 것이 쌓여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삼정KPMG 가족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Deal Advisory 구승희 대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삼정KPMG 운영위원이 희망 가득한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다. Vision 2020을 넘어 Vision 2025를 향해 나아갈 2021년, 운영위원들이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자.



應形無窮 응형무궁

새로운 상황에 맞춘 변화로 건강한 성장을!

2020년은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열정을 모아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CS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새들은 강한 비바람과 태풍의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동지를 만들기 위해 바람이 강한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새해 신축년은 모든 여건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이에 적시에 적응하는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자세로 우리의 체질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달성해야겠습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Consulting(CS) 정대길 대표



鵬程萬里 봉정만리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힘차게!

2020년은 연초부터 전 세계가 COVID-19로 휘몰아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삼정KPMG는 전 임직원이 단합하여 성장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밝아온 신축년은 그동안 우리가 목표로 했던 Vision 2020을 달성하고, 새로운 Vision 2025를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으로 봉새를 타고 만리를 힘차게 날아갈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Ambition인 Trust(사회적 신뢰 확보)와 Growth(성장)를 반드시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KPMG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Risk Management 양승열 대표**



衆心成城 중심성성

모두가 뜻을 모아 목표 이뤄가는 2021년 기원

지난 2020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열정과 긍정으로 도전하며, 삼정KPMG가 시장을 선도하며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밝아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희망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 변화에 도전하며 New Normal 환경을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삼정KPMG와 임직원 모두에게 희망을 성취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OO 이호준 부대표**



2021년 산업별 변화와 전망은?

2021

지난 2020년은 COVID-19에 따른 새로운 현실(New Reality)에 적응하는 한 해였다. 2021년은 적응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주체가, 변화가 일어날 지형도를 새로 그리게 될 시기이다. 이번 'Emerging Trends'에는 2021년 본격적으로 열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산업별 변화와 전망을 담았다.



성장 기대되는 산업, 반도체와 정유·화학, 게임·미디어

2021년 국내 주요 산업은 실물경제 동향과 소비심리 개선, 경영 환경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정유·화학, 게임·미디어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의하면, 2021년에는 모든 반도체 제품 매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메모리 반도체는 2020년 12.2% 성장에 이어 2021년에는 매출액이 13.3% 늘어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기업은 수요 증가 예측 품목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과 밸류체인 안정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유·화학 산업은 운송용 정유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NCC(나프타분해설비) 가격경쟁력 상승, 전기차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유·화학 기업은 NCC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배터리 해외 생산거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게임 시장은 이용자 증가와 해외 수출 확대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K-콘텐츠 인지도 향상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웹툰·웹소설, 드라마 제작 등 미디어 시장도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스플레이 산업 등 11개 산업 전망 '일부 긍정적'

2021년 디스플레이 산업과 휴대폰, 자동차, 에너지·유틸리티, 제약·바이오, 통신·방송, 유통, 식음료, 패션, 화장품, 증권 등 11개 산업은 '일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패널 수요 증가 속 성장세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니 LED와 롤러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의 등장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휴대폰 산업은 5G 스마트폰 전환 가속화 및 카메라 모듈의 진화, 스마트폰 외형 차별화로 5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통신 서비스 시장은 5G 이동통신과 기가인터넷 등 수요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시장은 통신사의 유료 방송사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각국의 내수부양, 기저효과로 2021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2020년 대비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완성차 생산·판매의 회복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그린뉴딜로 인한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압박에 따른 개발 경쟁 심화도 예측된다.

유통 산업은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예고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음료는 비대면 식생활의 뉴노멀화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내식과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식음료 기업은 소량 식재료·식품을 즉시 배송하는 '퀵커머스' 역량을 고도화하며 비대면 식품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HMR(가정간편식)과 식물성 식품 소재 관련 R&D 강화와 라인업 확장에 주안점을 뒀다. 패션·화장품 산업은 COVID-19 종식 시점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탈(脫)마스크'가 이뤄지는 시기에 따라 소비 회복기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제약사들의 아웃소싱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CMO(위탁생산)의 성장이 예상되며, 높은 R&D 투자 비용과 개발 기간 이슈로 M&A 및 전략적 제휴가 부각될 전망이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산업 현황 및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2021년 본격적으로 열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른 전략을 체계화하며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고객 경험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2021년 산업 전망 기상도

산업	2021년 전망	산업	2021년 전망	산업	2021년 전망
반도체	긍정적 ☀️☀️	에너지·유틸리티	일부 긍정적 ☁️	식음료	일부 긍정적 ☁️
디스플레이	일부 긍정적 ☁️	제약·바이오	일부 긍정적 ☁️	패션	일부 긍정적 ☁️
휴대폰	일부 긍정적 ☁️	건설	일부 부정적 ☁️	화장품	일부 긍정적 ☁️
자동차	일부 긍정적 ☁️	항공	일부 부정적 ☁️	은행	일부 부정적 ☁️
철강	일부 부정적 ☁️	통신·방송	일부 긍정적 ☁️	증권	일부 긍정적 ☁️
조선·해운	일부 부정적 ☁️	게임·미디어	긍정적 ☀️	생명보험	일부 부정적 ☁️
정유·화학	긍정적 ☀️	유통	일부 긍정적 ☁️	손해보험	일부 부정적 ☁️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마이데이터팀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마이데이터(My Data)’ 빅뱅이 시작됐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삼성KPMG 마이데이터팀을 만나보았다.

마이데이터 경쟁 시대, 근본적 혁신 및 보안 역량 강화해야

마이데이터(My Data)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개방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오는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 플랫폼 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만큼 국내 금융권 기업들은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준비와 데이터 활용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한다. 단기적 사업 모델로의 접근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제판 분리 등 채널별 역할 변화, 상품 포지셔닝 등에 있어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상품 개발을 예로 든다면 신용정보 주체의 편익 제고를 위해 협업이 필요한 업종 간의 대환상품(예: ‘종신보험’을 ‘정기보험 + 미국 적립형 인덱스 펀드’)을 개발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마이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고객의 동의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빅테크 및 핀테크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의 다양성과 금융 데이터 결합에 따른 가치 증대를 모색하고, 테크 기업이 가진 고객 접점 및 상호작용,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 한편, 마이데이터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저해 요소

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리스크인 만큼 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 관련 물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의 마이데이터 전문성 보유, 기업의 경쟁력 끌어 올리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

삼성KPMG 마이데이터팀은 4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리서치 역량 및 네트워크 활동, 프로젝트 경험에 기반한 국내 최고의 마이데이터 전문성 보유하고 있다. 팀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효익 증대, 신용정보 보호, 금융의 포용성, 데이터 기반 新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본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는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전략, 서비스 정의, 플랫폼 설계 및 인허가 대응 자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왔으나,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사업 경쟁력 제고, 차별화된 서비스 실행 및 제휴 생태계 구축 자문 등으



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상 고객도 금융사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유통, 통신 기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마이데이터팀은 개인신용정보에서 출발한 마이데이터가 공공, 통신, 유통,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여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 종합지급결제 등 규제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신성장 전략, 제휴 생태계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마이데이터로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마이데이터팀의 주요 서비스 •

 <p>마이데이터 인허가 대응 전략, 사업모델, 서비스, 플랫폼, 실행에 이르는 End-to-End 컨설팅</p>	 <p>은행, 카드, 증권, 보험, 핀테크, 빅테크 등 업권별 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최적 실행안 제시</p>	 <p>금융+비금융 데이터 연계를 통한 차별화 서비스 및 제휴 생태계 확장 지원</p>
--	--	---

INTRODUCE

• ‘마이데이터팀’을 소개한다면?

조재박 전무 (팀 리더)
jaeparkjo@kr.kpmg.com



“우리 팀은 마이데이터 전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마이데이터가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동반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동근 상무
tongkeunlee@kr.kpmg.com



“우리 팀은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팀으로, 앞으로 금융사를 넘어 플랫폼, 유통, 통신 기업 등에게도 차별화된 자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세호 상무
seihokim@kr.kpmg.com



“최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고객이 데이터 기반의 Value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SAMPYO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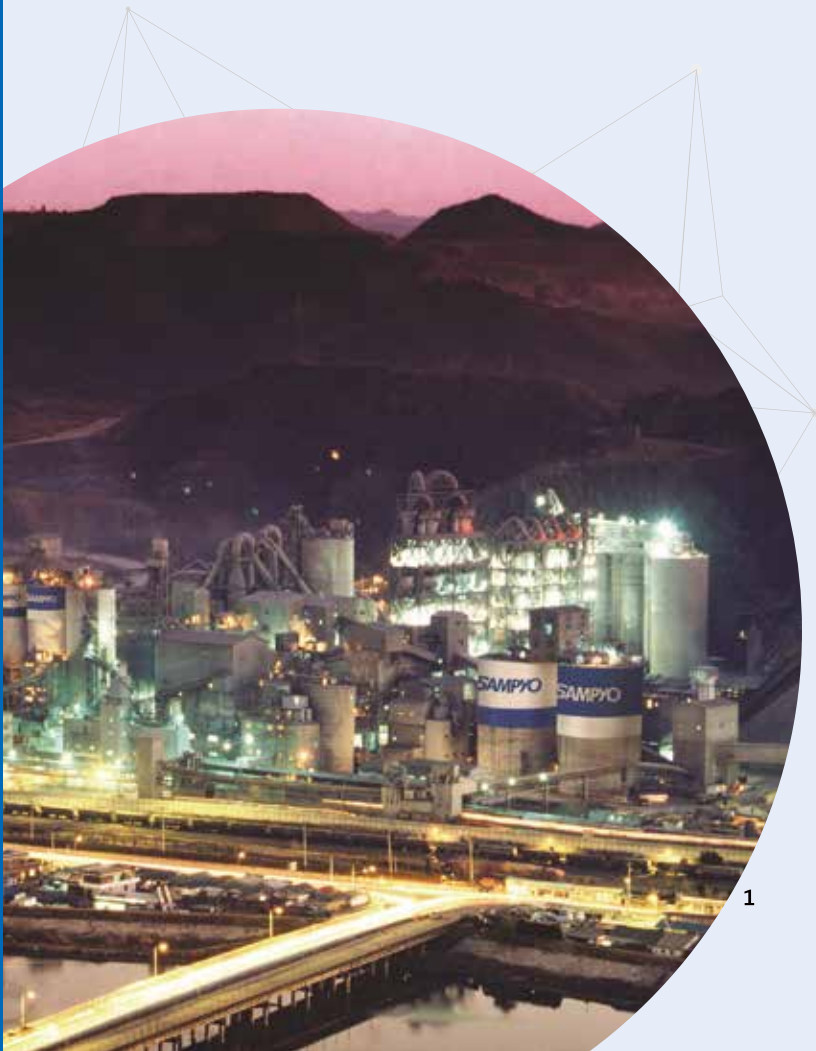
건설기초소재 전문 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라는 그룹 슬로건 아래 삼표산업(레미콘·골재), 삼표시멘트(시멘트), 에스피네이처(환경자원사업), 삼표피앤씨(PC), 삼표레일웨이(철도)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마켓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물류, IT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기초가 되는 BUILDING MATERIALS 1등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업계를 선도하다

레미콘업계 최초로 자체 브랜드 ‘블루콘’을 도입한 삼표그룹은 수도권 기준으로 레미콘 출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25곳에 레미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서부산 전역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골재 공급 능력에서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건설기초 주원료인 골재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석산, 발파석, 해사(바닷모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시멘트 부문에서도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 2015년 10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면서 업계 최초로 레미콘, 시멘트, 골재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시멘트 산업에 진출한 삼표시멘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을 갖췄으며, 2020년 11월에는 클링커 누적 생산량 3억 톤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시멘트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아울러 삼표그룹은 동종업계 최초로 레미콘 운전자 편의를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상용화한 데 이어 전화·모바일 주문 통합 플랫폼인 ‘삼표 스마트오더’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설기초소재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독자적·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키우다

삼표그룹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겨울철 영하 10도에서도 정상적으로 타설이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BLUECON WINTER)’와 지하주차장 바닥용 무근 콘크리트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는 ‘블루콘 플로어(BLUECON FLOOR)’ 등 특수 콘크리트가 대표적인 예다.

경쟁사보다 앞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배경에는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R&D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삼표그룹은 소재별 최고 수준의 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1993년 레미콘 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경기 광주시)를 설립한 데 이어 시멘트 연구소(강원 삼척시), 철도기술연구소(충북 청주시), 콘크리트 연구소(경기 화성시)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등 세계적인 건설 선진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협업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끊임없이 기술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다

삼표그룹은 산업 부산물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건설기초소재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0년 3월 (주)에스피네이처와 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코스처는 국내 최초의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전문법인으로,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과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환경부로부터 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삼표시멘트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19년 9월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 7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통해 연간 약 2만 톤의 생활 폐기물이 연료로 활용되면서, 유연탄 사용절감 효과로 대기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

삼표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국내 소외 지역의 중·고·대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 지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교육 소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미술 캠프인 ‘삼표와 그린(GREEN) 지구’와 연탄·쌀 나눔 봉사인 ‘삼표가 그린(GREEN) 따뜻한 겨울’ 등 테마가 있는 나눔 프로그램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야간 전경
2. 삼표와 그린지구 청소년 체험활동
3. 삼표레일웨이 작업 현장
4. 삼표산업 성수공장 주간 전경



삼표봉사동호회는 헌혈, 급식 봉사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임직원 봉사단인 ‘위드(WITH)’도 지역의 환경정화·장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움의 기초’는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도전과 혁신, 이를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한 삼표그룹의 끊임없는 노력은 늘 앞선 성과로 발현되며,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기업의 가치를 입증해왔다.

더불어 친환경 산업을 통해 자원과 사람을 위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삼표그룹은 또 다른 변화를 꿈꾸며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언택트(Untact) 시대, 다시금 주목받는 비대면 의료 산업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부상하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호에서는 비대면 의료 산업의 최근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韓,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 한시적 허용

지난 2020년 2월 22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판단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의료를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시적 허용 방안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상담 등과 같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처방 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비대면 의료의 안전성, 의료 수가, 편중현상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그동안 정체된 비대면 의료 산업의 발전 관점에서는 큰 도약으로 향하는 작은 첫걸음을 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비대면 의료 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시민

단체와의 의견 차이와 저조한 참여로 대부분의 추진 사업은 무산됐다. 반면, 이번에 시행된 비대면 의료 사업의 결과는 지난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그동안 비대면 의료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대대적인 의식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 중점 육성 필요한 언택트 서비스 분야 1위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과 함께 '언택트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가 의료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언택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전체 소비 금액 중 35%를 차지했던 언택트 소비의 비중은 코로나19 이후에는 과반 이상인 57%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또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언택트 서비스 중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 1위(24.7%)로 꼽혔다.

현재 한국의 비대면 의료 시장은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 의료계, 시민 단체와의 의견 차이와 저조한 참여로 지지부진했던 비대면 의료 산업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투입하는 10대 종합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산업을 포함시켜 육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제 막 태동을 알리는 한국 비대면 의료 산업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성공적인 안착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향후 비대면 의료의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①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②기술적 혁신(Advanced Technology) ③정부의 촉진 제도(Facilitator) ④데이터 연결 기반 생태계(Ecosystem)가 필요하다. 이는 곧 'S·A·F·E'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즉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대면 의료의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점은 이해 관계자 간의 이해와 협의이며, 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명확한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기술적 혁신을 통한 서비스 실현화가 필요하다. 수많은 아이디어도 실현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각 기관들은 비대면 의료를 유연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또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현실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촉진 제도가 필요하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도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아직 태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국내 비대면 의료 산업이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는 정부의 R&D, 진료 인프라 구축 단계 등에서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료

수가 관련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한 촉진 제도가 요구된다.

넷째, 데이터 연결 기반의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 비대면 의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의료산업 내의 데이터 단절은 피가 돌지 않는 인간의 몸과 같다.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순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혁신도 실현돼야 하며 수집된 의료 정보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산업 참여자들에게 순환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도, 의료업계 관계자들도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비대면 의료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CONTACT US

헬스케어 산업 리더 박경수 상무

Tel. 02-2112-6710

E-mail. kyungsoo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비대면 의료를 이끄는 4가지 요소

Social Corporatism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혁신

Advanced Technology

기술적 혁신을 통한 서비스 실현화

Facilitator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촉진 제도

Ecosystem

데이터 연결 기반의 생태계 혁신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 시대, M&A 시장에서 살펴본 산업의 변화상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요즘, M&A 시장에서 각광받는 산업을 관찰하다 보면 시대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다. 삼정KPMG M&A 전문가와 함께 최근 M&A 시장에서 주목받는 산업과 전자상거래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최근 M&A 시장에서 각광받는 산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Last Mile Delivery 산업입니다. 물류는 생산지에서 대형 물류창고나 거점지로 이동하는 대규모 물류를 의미하는 First Mile Delivery와 물류센터에서 주로 오토바이를 통해 각 배송지로 전달되는 소규모 물류인 Last Mile Delivery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토바이 물류 시스템은 물류 혁신을 이루며 더욱 성장할 산업이며 발전하고 개선돼야 할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는 PPE(Private Protect Equipment) 산업입니다. 누군가 근처에서 재채기를 하면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살펴보거나,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위생장갑을 끼는 등의 문화는 새로운 산업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장갑, 고글, 위생화, 보호복 등 외부 위험으로부터 각자의 안전을 돕는 도구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를 PPE라고 합니다. 글로벌 PPE 강자인 3M은 관련 분야의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M&A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PPE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Q2 코로나로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떠한가요?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이미 예견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간 무한경쟁 속에서 최근 대규모 자금 유치를 하고 있는 B사는 흥미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업자들의 매출 개

념도는 ① 소비자가 특정 수요를 느낀다 ② 그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한다 ③ 소비한다 순서였지만 B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들이 우리 사이트(site)에 자주 오게 되면 매출이 늘지 않을까?”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동영상, 제품 패키지, 게임적 요소 등을 도입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한 수요가 없어도 심심해서 방문해보는 곳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Q3 코로나 시대, 경영진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살펴본 산업 외에도 코로나로 성장하는 산업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경영자는 이러한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답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Deal Advisory5본부
김이동 전무

Tel. 02-2112-0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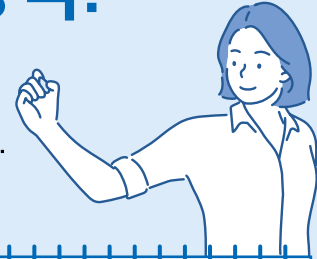
E-mail. yidong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한경 CFO Insight] 코로나와 허잡, 그리고 마스크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신축년 새해, 가장 주목받는 시사·경제 용어는 무엇일까?
최근 이슈를 모은 시사·경제 용어와 통계 자료를 살펴본다.



피보팅(Pivoting)

피보팅은 공을 든 채 한쪽 다리를 여러 방향으로 옮기면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농구 용어지만, 요즘은 기업이 기존 사업 모델이나 목표를 고칠 때를 말하는 경제 용어로도 쓰인다. 책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위기상황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는 '피보팅' 전략을 2021년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판매 방식이나, 대상을 바꾸면서 위기를 기회를 바꾸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례로 스타벅스는 코로나 이슈로 앱을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가라운드(mega-round)

스타트업 기업이 1회 1억 달러(약 1천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은 주로 미국 기업,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실시한다. 미국 조사업체 CB인사이츠에 의하면 2020년 7~9월 스타트업의 메가라운드 건수는 88건으로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달금액도 198억 달러(21조9천억 원)로 2018년 10~12월 255억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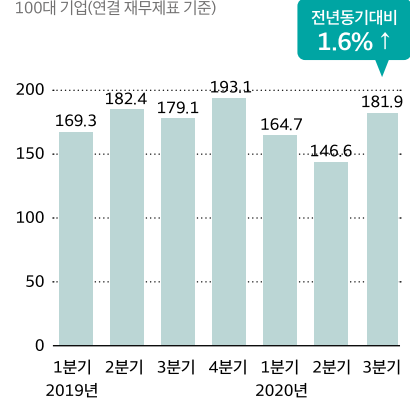
출처: 연합인포맥스

100대 기업 3분기 해외 매출 181.9조, 전년 대비 1.6%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3분기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81조 900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수입액이 코로나19 경제 활동 제한조치 완화,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2020년 3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 100대 기업 해외매출 추이 ◆

단위: 조 원, 2019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KPMG Story

2021년 기대하는 삼성KPMG의 모습은?

Hello 2021

소띠 삼성인들이 품은
2021 버킷리스트는?

인재양성소

‘ASPAC New Manager Series’
어땠나요?

心 Care

시간은 우리 편!
‘우리의 인생은 길다’

세계는 지금!

경제 회복 신호탄 쏘아 올린 캐나다!

Samjong News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시무식’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外



삼정인이 말한다!

2021년 기대하는 삼정KPMG의 모습은?

신축년 새해, 삼정인이 바라는 삼정KPMG의 모습은 어떠할까? 2021년에 더욱 성장하고 발전될 삼정KPMG의 모습을 희망하며, 삼정인이 전해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그리고 삼정인이 힘차게 외친 KPMG 5 Values도 살펴보자.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와 행복한 일터를 마련해 가는 곳

정혜원 S.Manager (Global Tax)

2021년에도 고객에게 조금 더 신뢰 받는 전문가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행복한 일터의 모습을 담은 KPMG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행자 역할을 해내는!

최준성 Director (IM3)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예측 불가능한 낯선 환경에 놓인 고객들에게 든든한 친구와 같은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삼정KPMG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정KPMG가 '자본시장의 백신' 역할 해내기를!

임두빈 S.Manager (경제연구원)

2021년 삼정KPMG는 '자본시장의 백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삼정KPMG가 고객들의 위험을 예방해 주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그런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삼정인과 함께한 KPMG 5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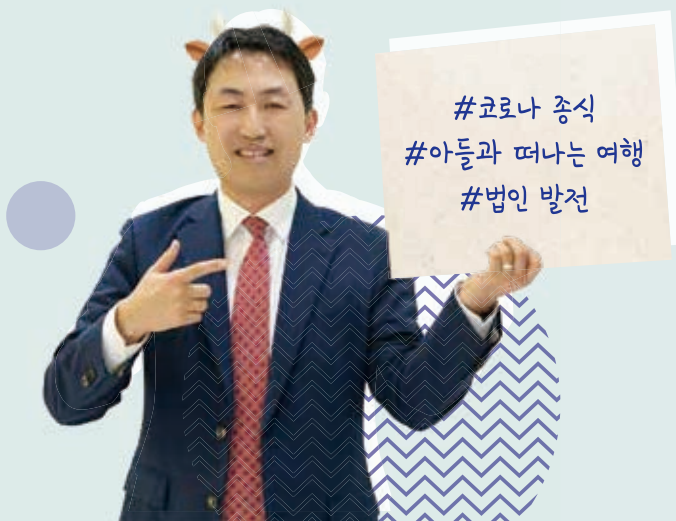


- ① Integrity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한다.
- ② Excellence 우리는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한다.
- ③ Courage 우리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④ Together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으로부터 강점을 끌어낸다.
- ⑤ For Better 우리는 사회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한다.





소띠 삼정인들이 품은 2021 버킷리스트는?



#코로나 종식
#아들과 떠나는 여행
#법인 발전

김정환 전무 (Deal Advisory2)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역시 '코로나 종식'입니다. 더 이상 마스크로 얼굴 가리지 않고 동료,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해외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팀 주력 업무인 해외 부동산 자문 업무가 다시금 활발해져서 기쁘게 바빠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중2가 되는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싶네요. 입학식도 못 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사춘기까지 찾아와 미래의 고민과 함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들과 둘만 떠나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우리 삼정KPMG의 발전입니다. 2020년의 어려운 상황도 극복한 저력을 가진 삼정KPMG이기에 2021년은 더욱 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아내와 해외여행
#한 달에 책 한 권
#가족의 건강

류수석 S.Manager (Global Tax)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아내와의 해외여행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확진자 수가 줄어서 함께 신혼여행 후 첫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는 것입니다. 살면서 읽었던 책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작년에 새로운 책을 접할 때마다 인생 책이 되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혹시 책 교환해서 읽으실 삼정인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은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옆에 있을 때 그 소중한 함을 모른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 해 동안 건강하기"가 저의 가장 큰 2021년 버킷리스트입니다.

2021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이하여, 소띠 삼정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어봤다.
73, 85, 97년생 소띠 삼정인의 버킷리스트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신뢰받는 전문가
#등산
#아이와 추억 쌓기

권윤정 S.Manager (B&F1)

소띠 해를 맞아 이루고자 하는 저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더욱 신뢰성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더 깊은 역량을 발전 시켜 맡은 일을 잘 해내는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예쁜 산 다섯 곳을 정상까지 등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점점 운동을 멀리하는 것 같아 새해에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셋째는 아이랑 더 많은 추억 쌓기입니다.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 국내외로 많은 경험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2020년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2021년에는 모두가 활기찬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운동
#부모님과 여행
#할머니와 추억 만들기

송다혜 직원 (Q&RM-RM)

2021년 새해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 보려고 합니다. 입사 이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운동을 해본 날이 거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여행'을 2번 이상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바빠서 본가 근교 드라이브 외 최근에 여행다운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손에 꼽습니다. 새해에는 네 식구가 시간을 맞춰 리프레쉬와 힐링을 주제로 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할머니와 시간 보내기'입니다. 본가가 멀어 자주 뵈지 못했는데 새해에는 꼭 직접 방문이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드려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ASPAC New Manager Series’ 어땠나요?



ASPAC New Manager Series란?

‘ASPAC New Manager Series’는 KPMG ASPAC 지역에 속한 총 12개 나라의 신규 매니저들의 승진을 축하하고,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 및 소통으로 협업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Virtual Classroom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참가자들이 미래를 위한 성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Introduction & Networking/ Strategic Visioning/ Leading Self/ Client Lens/ Working with others/ Wellbeing & Resilience’를 주제로 총 6차례에 걸쳐 마무리됐다. 한편, KPMG ASPAC은 ‘ASPAC New Manager Series’를 통해 새로운 현실 속에서 KPMG를 이끌어 갈 미래 리더십을 구축하고, 지역 리더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KPMG ASPAC - Stronger Together’를 통한 비전 달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ASPAC New Manager Series’ = ‘환영, 신선, 활기, 성장’

김주한 교육 소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환영’입니다. 바쁜 일정에 ASPAC 교육 일정이 잡혔을 땐 부담감도 있었지만, KPMG의 매니저가 된 것을 환영해주는 듯한 교육 콘텐츠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정익형 ‘신선함’이라고 하고 싶네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마인드, 조직 비전의 이해, 팀원 및 고객과의 관계 등을 교육으로 접하고 나니, 그동안 당연시 여겨온 것을 잊고 지냈음을 알게 됐어요. 각각의 교육들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신동환 저는 ‘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가한 ASPAC 매니저들 모두가 매우 적극적이고 활기찼어요. 특히, 발표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채팅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이러한 적극성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용택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조직의 중간 직급으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어요.

ASPAC 매니저들과 네트워킹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시간

신동환 저는 첫 세션인 ‘Introduction & Networking’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각 ASPAC 국가의 신규 매니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모두가 의욕에 고취되어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정용택 저는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점검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라’라고 강조한 ‘Leading Self’ 세션이 기억에 남는데요, 업무에 쫓겨 좁아지고 편향되어온 시야를 바로 잡을 수 있던 좋은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김주한 저 역시도 ‘Leading self’ 세션이 기억에 남아요. 매니저 승진 이후 과거에 비해 업무 역할이 크게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때문에 이 과정에 더욱 집중했고, 매니저로서 업무를 이끌어가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익형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수강한 세션은 ‘Working with others’인데요,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업무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모습을 존중해 주고, 경청하는 것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이라는 점이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줄 때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강의였어요.

매니저로서의 힘찬 시작,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신동환 요즘처럼 해외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국가의 KPMG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간접 경험할 수 있던 교육 과정이었고,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매니저로서 처음 맞이한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네요.

정익형 이번 교육을 수강하면서 KPMG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KPMG Global 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도 품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Good Listener’를 갖춘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정용택 최근에 고객 및 상사와의 관계, 업무 방식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열정으로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전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김주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매니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선배님들처럼 매니저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나아가 후배들에게도 폐 끼치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시간은 우리 편! '우리의 인생은 길다'

우리의 인생은 짧을까? 길까? 한 해의 시작 앞에서 흘러간 세월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신영철 소장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자.

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신영철 소장



스트레스 해소에 뭐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냥 좋아하는 것 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아야 진짜 자신의 무기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 못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정말일까?

우선 거창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다. 인생은 짧은가? 긴가? 당연히 정답은 '인생은 짧다.' 돌아서면 한 해가 간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래서 많은 대가들이 인생이 짧다고 가르쳤다. 그 말은 세월이 빨리 흐르니 열심히 살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생각이다. 인생이 짧으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때로는 젊은 친구들이 아예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30대 초반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쉰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나는 가끔 거꾸로 가르친다. 인생은 참 길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정말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법은 결코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모 외국계 제약회사 직원이 진료를 보러 왔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안 오고 불안해서 힘이 든단다. 외국계 회사인데 영어가 안 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연말 승진 시즌만 되면 고민이 깊어진다. 자꾸 승진은 늦어지는데 신참들은 영어를 우리말처럼 하는 게 아닌가? 참 죽을 지경이다. 뭐 내가 도와줄 일도 별로 없으니 위로하고 처방을 하고 보냈다. 그 후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3년쯤 지나고 연말, 또 인상을 쓰고 나타났다.

'선생님.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영어가 안 돼서요.'

'제가, 3년 전에 들던 말과 똑같네요?'

'그래, 그동안 영어 공부는 좀 했어요?'

묵묵부답이다.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은 영어로 몇 마디 할 수 있을 텐데. 힘들다, 힘들다, 말만 하고 출발조차도 하지 않는다. 10년 후를 계획하고 출발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급하다. 한 달 만에 5kg을 빼는 게 목표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 성공한다 한들 어차피 다음 달에 10kg이 찐다. 차라리 1년 동안 5kg을 빼다고 목표를 세워보자. 한 달에 0.5kg만 조절하면 된다. 좀 길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래 전 막 환갑이 된 선배를 만나 적이 있다.

‘신 선생, 내가 바이올린을 시작했어.’

들뜬 표정으로 나를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니 나이 60에 무슨 바이올린을요? 예전에 좀 했어요?’

평생 처음이란다. 무슨 생각으로 그 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을까?

‘인생이 참 재미가 없어, 늘 같은 일상, 같은 일,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근데 내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는 거야.’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동네에 다니던 약장수의 바이올린 소리, 그 소리에 반해서 뒤쫓아 다니던 추억이 떠오른 거다. 엄마를 즐겼지만, 그 시절에 무슨 돈이 있었나? 당연히 못 배웠지. 그러곤 잊고 살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린 거다. 죽기 전에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

‘근데 말이야, 신 선생, 석 달을 배웠는데 아직 동요도 하나 못해.’ 그러곤 씩 웃는다. ‘신 선생, 기다려 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 하나 들려줄게.’

나는 그때 그 선배의 눈빛과 표정을 잊지 않는다. 인생은 참 길다. 지금 출발해 보자.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Profile

신영철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네소타대학에서 연구조교수로 중독 문제에 대해 연수했다. 현재 성곡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로 근무 중이며 2013년 개설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불안학회 회장,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학술 및 다양한 공익활동의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KBS <아침마당>의 ‘수요가족탐구’ 패널로 수년간 활동했고, 최근 저서로는 <그냥 살자>(2019), <어쩌다 도박>(2020)이 있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복, 스트레스 관리, 소통, 공감, 좋은 부모, 리더십 등에 대해 강연해오며, 기업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삼성KPMG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유지를 위한 ‘CIM(心) Care Program’에 참여하며,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KPMG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진단 및 개별 상담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경제 회복 신호탄 쏘아 올린 캐나다!

캐나다는 COVID-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2020년 3분기부터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호는 Global Mobility Program으로 2019년 10월부터 KPMG 캐나다 오피스 감사본부에 파견 중인 정소영 S.Manager를 통해 캐나다의 현 상황을 살펴본다.

글. KPMG 캐나다 토론토 오피스 정소영 S.Manager
E-mail. soyoungjeong1@kpmg.ca / Tel. +1 416 549 7868



2020년 3분기 경제 성장, 사상 최대 기록

2020년 3분기 캐나다 경제가 급성장하며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캐나다 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환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COVID-19 확대 예방을 위해 실시한 록다운(도시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기업이나 점포가 활동을 재개한 것이 그 영향이라고 밝혔다. 물론, COVID-19 유행이 가속된 가운데 회복이 얼마나 유지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주마다 다른 비즈니스 특성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국토 면적이 큰 나라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주마다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알버타(AL)주의 경우 캐나다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원유와 광물, 임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브리티시컬롬비아(BC)주의 경우 관광업이, 그리고 온타리오(ON)주의 캐나다의 주된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미 동북부와 근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북미지역 차량공급을 위한 생산 및 판매기지로서 완성차 생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1, 2차 대형 벤더 및 판매법인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연방 정부와 각 주별 지방정부의 정치 성향 및 구성이 달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의견 충돌이 있을 시 결과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는 편이다.

COVID-19로 달라진 비즈니스, 캐나다에서도 총알 배송이!

현재 북미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룩다운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 아마존 및 우버를 활용한 언택트 쇼핑의 활성화 등)로 기존의 대면방식으로 영업을 유지해오던 비즈니스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e-Commerce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이전보다 택배와 배달이 빠르게 진행돼 한국에서는 흔한 총알 배송을 캐나다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특히 Uber를 통한 음식 배달 사업의 경우 기존에 내부 식사(dine-in)만 운영하던 식당들도 배달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및 업체별 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향상도 COVID-19가 기여한 긍정적 효과이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기피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구매 수요도 증가한 점 역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캐나다 진출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지 실사를 통한 현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제반 리스크 검토는 필수이다. 캐나다의 경우 원주민에 대한 보호주의가 강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 선정을 위해 현지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한 사전 리스크 파악이 필요하다.

넓은 국토로 인해, 날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 예를 들어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 공사 지연 등이 빈번하고, 퀘벡(QC)주의 경우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진출 목적에 따른 Tax structuring의 명확화도 필수다. 진출 목적이 가업



KPMG 캐나다 CIM본부에서 근무 중인 정소영 S.Manager가 본부원들과 비대면으로 화상회의하는 모습

상속인지, 미국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체계적인 납세 플래닝 및 세무구조 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시사각각 변화되는 주정부의 대응도 살펴봐야 한다. 룩다운에 돌입하거나 해제하는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정부보조금에 대한 기준 변경, 혹은 신규 보조금 지급계획 등이 사전에 일정 준비 기간을 염두하고 고지되지 않고 효력 발생일 직전에 공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러한 주 정부의 정책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KPMG 캐나다

KPMG 캐나다의 토론토 감사본부는 총 6개 본부로서 CIM(Consumer and Industrial Market), FI(Financial Institutions), FIRE(Financial Institution and Real Estate), ENR(Energy and mining), TMT(Tech,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그리고 소규모 기업 감사를 주로 담당하는 Enterprise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필자가 속한 CIM본부는 제조업과 소비재기업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벌비스, 한국타이어 등 주로 국내 자동차 관련 현지 판매법인과 소매업종으로는 LG전자 판매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BC주 KPMG 밴쿠버의 경우 주로 자동차 관련 기업이 포진된 ON주와는 다르게 다양한 업종이 진출해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포스코를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유통업, 게임 산업, 관광업 관련 중견기업들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KPMG 몬트리올이 담당하는 고객 녹십자는 현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생활건강(Faceshop)은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진출한 바 있다.



“COVID-19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백신 보급이 본격화될 2021년에는 더 나은 경제 상황을 기대하며,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amjong News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시무식'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삼성KPMG는 2021년 1월 4일에 '신축년(辛丑年) 시무식'을 개최, Vision 2020을 넘어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채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무식 현장에서 김교태 회장은 “코로나19로 예측 불가능한 2020년이었지만,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든 시기를 잘 헤쳐왔다”라

며, “신축년 새해에는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강한 실천 의지로 우리의 Vision 2025를 향한 희망찬 도전을 함께 이뤄나가자”라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 열려



삼성KPMG가 2020년 12월 3일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삼성KPMG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회계 및 세무 이슈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했다.

* Contact: ICE1 최진석 상무 jinseokchoi@kr.kpmg.com

'제7회 콘텐츠 산업 웨비나' 개최



지난 2020년 12월 15일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콘텐츠 산업 웨비나'가 개최됐다.

본 웨비나를 통해 콘텐츠 산업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및 세무 이슈를 짚어보고, 내부역량 고도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Contact: ICE2 강승미 상무 seungmikang@kr.kpmg.com



2020년 M&A 회계자문 1위 기록

삼정KPMG가 주요 언론 매체에서 집계한 2020년 M&A 회계자문 1위를 기록하며 최강자의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31일 더벨이 집계한 2020년 M&A 회계자문 리그테이블에서 삼정KPMG가 압도적인 거래 건수(71건)로 조정 점유율 33.75%로 1위에 올랐다. 삼정KPMG는 맥쿼리자산운용의 대성산업가스 인수, 웅진그룹의 코웨이 매각, SK건설의 EMC홀딩스 인수, 대한항공 기내식기판사업본부 매각 등 빅딜에서 회계자문사로 활약했다. 이외에도 맥쿼리자산운용의 LG CNS 지분 인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폐기물처리업체 ESG 지분 인수와 ESG 청원 지분 인수 등 굵직한 거래에서 회계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5일,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2020년 M&A 리그테이블에서도 M&A 회계실사 부문 1위에 올랐다. 삼정KPMG는 대한항공 기내식 매각, SK 건설의 EMC 인수 실사를 비롯해 4분기 카카오뱅크 증자에 앵커PE의 인수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정상에 올랐으며, 재무자문 업무로의 영역 확대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요꼬가와전기와 OT·ICS 보안 사업 MOU 체결



삼정KPMG와 한국요꼬가와전기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OT(산업운영기술) 보안 사업 강화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신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OT·ICS 보안, 정보보호, 디지털 융합 환경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통제 및 보호 기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교환한다.

* Contact: MCS2 정두호 차장 djung8@kr.kpmg.com

LG CNS와 손잡고 스마트팩토리 보안시장 공략 나서



삼정KPMG가 LG CNS와 손잡고 스마트팩토리 보안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정KPMG와 LG CNS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스마트팩토리 보안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사는 ▲신규고객사 발굴 ▲전문 인력 육성 ▲컨퍼런스 개최 등 스마트팩토리 보안에 특화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Contact: MCS2 정두호 차장 djung8@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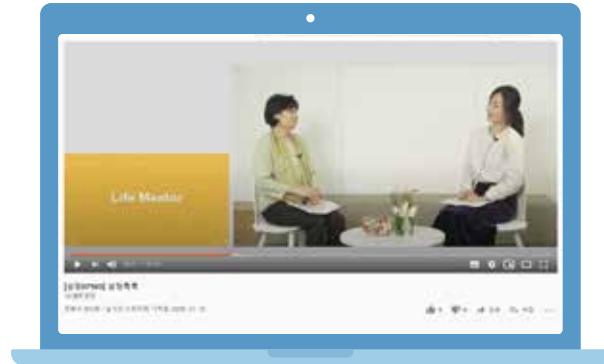
Samjong News

‘삼정포럼’,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강연 나서



2020년 12월 9일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삼정 포럼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경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지표 읽기부터, 팬데믹과 경제정책, 미래를 위한 대비 전략 등 전방위적 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삼정톡톡’, ‘마음 건강’을 주제로 온라인 라이브 개최



지난 2020년 12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삼정톡톡(삼정 Talk! Talk!)’ 온라인 라이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최은영 임상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직장인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 ‘감정 표현의 어려움’ 등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제2회 KPMG 아이디어톤’ 2월에 개최



삼정KPMG는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 솔루션 아이디어’를 주제로 대학 재학생(학부생 및 석·박사 포함) 대상 ‘제2회 KPMG 아이디어톤 (Ideathon)’을 개최한다. 2021년 1월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서류심사를 거친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부터 무박 2일간 국내 결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승팀은 1,000만 원의 상금을, 2등은 500만 원, 3등은 300만 원 등을 수여한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오는 2021년 4월 글로벌 KPMG가 주관하는 국제 결선인 ‘KPMG 아이디어이션 챌린지’ 참가 자격과 함께, 삼정KPMG Lighthouse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 Contact: PPC 김민영 직원 mkim71@kr.kpmg.com

INTRODUCE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Domestic Tax1본부 유정호 상무

삼성KPMG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Domestic Tax1본부에 유정호 상무를 영입했다. 유정호 상무는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세무 자문 및 세무 조사 대응, 세무 진단, 조세 불복,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맡아온 조세 전문가로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으로 삼성KPMG Domestic Tax본부의 성장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유정호 상무는 “국내 세무자문 분야에서 Top Tier 자문사로 도약한 삼성KPMG에 합류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최근 COVID-19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삼성KPMG가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 신뢰를 갖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사 포부를 전했다.



유정호 상무 (Domestic Tax1본부)

경력

-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9~2020년)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2010~2019년)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2005~2008년)

Digital본부 황태영 상무

삼성KPMG는 지난 2020년 12월 7일 Digital본부에 황태영 상무를 영입했다.

황태영 상무는 Accenture, EY Singapore, Willis Towers Watson에서 국내외 전략, Digital, Globalization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왔다. 13년간 쌓아온 디지털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KPMG Digital본부에서 디지털 혁신 및 전략 등의 컨설팅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황태영 상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 KPMG의 CS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되어 영광”이라며 “국내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KPMG의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포부를 밝혔다.



황태영 상무 (Digital본부)

경력

- Willis Towers Watson, APAC 보험 컨설팅 사업 전략 리더 (2020년 02~11월)
- EY Singapore, 금융 컨설팅사업부 (2014년 10월~2020년 01월)
- Accenture, 전략 사업부 금융 전략 리더 (2008년 05월~2014년 09월)

A Culture for Trust and Growth

KPMG Values Refresh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우리의 새로운 5 Values는 우리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로 구성되어 있다.

Integrity

We do what is right.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한다.

Excellence

We never stop learning and improving.

우리는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한다.

Courage

We think and act boldly.

우리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Together

We respect each other and draw strength from our differences.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으로부터 강점을 끌어낸다.

For Better

We do what matters.

우리는 사회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한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